

大學教授와 學生評價

黃 禎 奎

(高麗大 教育學科 教授)

學生評價方法의 自律性을 위해서는 교수에게 평가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뒤에 책임을 부여하는 대학의 자율이 先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형, 논문형 기타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위해서는 재료, 인쇄, 조교, 체점 등에 관련된 각종 行政的 支援은 필수적이다.

I

불행한 일, 아니 달리 생각하면 행복한 고백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大學의 歷史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고등교육 특히 대학의 역사와 그 문화적 전통은 그 社會가 요구하는 각종 기대와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하기 위해 탄생하고 소멸하며 변질되기 마련이다. 유럽의 모든 대학 기관의 변모가 그러한 과정을 겪어 발전되어 왔고 비교적 신흥국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대학교육이 그러한 변모를 겪었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변질의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우리의 대학교육의 傳統과 文化는 엄격히 표현하면 1945년의 역사적 사건의 선물로서의 사생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 이념, 제도, 교육내용이나 방법들이 모두 借用證書에 쓰인 데로 모방했거나 아니면 定型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실한 명제 속에서 겪어 왔던 전통의 여파는 곧 대학교육에도 여러 가지 양상을 띤 混沌을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그 중의 하나가 고도 산업사회, 탈공업 사회를 급속히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인력, 개발된 기술인력에 비해 급격하고 大量的인 需要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생산하는 인력 공급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 大學生 人口의 양적 증대와 아울러 질적 저하라는 역작용 현상을 빚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 팽창은 이같은 양적 증가에 상승효과를 더해서, 이제는 어느 가정에서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대학교육의 普通化, 大衆化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적 변화 속에서도 대학이 지향해야 할 目標,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條件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곧 대학에서의 評價方法을 구축하는 規準, 자(尺)의 역할을 한다. 즉 대학은 한 국가의 知的 秀越性의 표준(a standard of excellence)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변하고, 사회적 조건이나 구조가 변한다고 해도 한 국가 및 사회의 지적 수월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창조하고 혁신하는 역할은 대학에 맡겨진 책무이다. 대학이 흔히 상아탑이라는 비난과 질시를 받기도 하고, 대학이 이론이나 공론에만 매달린다는 질책을 받기도 하고, 대학이 현실감각에 둔한 사변적 논리만에 집착하고 있다는 충고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학이 「대학답고」, 대학생이 「대학생다운」 것도 그들이 한 국가의 각 전공 분야에서의 學問的 標準과 知的 秀越을 유지 발전시키며, 국제적인 두뇌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학이 어디까지나 지적, 학문적 표준유지가 제 1차 목표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II

위에서 논의한 이같은 대학교육의 性格은 곧 대학에서의 학생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구축하기 마련이다. 教育內容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각 전공영역, 더 자세히는 각 전공 교과목의 학문적 영역에서 수월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된 표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평가의 방법도 이러한 목표를 측정,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학 교수 사이에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경향은 이같은 目標意識의 결핍이다. 한 개의 교과목을 자기 「멋대로」 적절히 구성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지적 표준에 도달시키려는가 하는 의식도 없이 가르치고, 고사를 출제하고, 영점을 주고, 기록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教授의 權威」라고 하는 묘한 자부심이 교수는 아무 것이나 제멋대로 가르치고, 아무렇게나 평가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타성은 타기되어야 한다. 훌륭한 교수, 능력있는 교수란 자기

가 다루는 교과목의 教授目標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야 잘 했다 혹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敎科目觀, 評價觀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같은 합리적 목표만은 적어도 약간의 개인적 특색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학문 분야에서의 지적 수월성을 지시하는 목표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평가에서도 이 목표에 아주 우수한 성취 결과를 보이면 모두 A, A+가 되게 하며, 모두 불성취의 증거를 보이면 D, F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뜻에서 대학이야말로 目標志向評價(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체제를 철저히 지켜야 할 교육기관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교수목표를 성취했으면 합격,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낙제라는 제도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곳이 대학이라고 본다. 또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다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예컨대 放學學校의 운영, 再試驗, 再受講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시각에서 마땅히 채택되어야 할 제도로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같은 제도에 뒤따르는 사무상의 번잡, 행정절차의 혼란, 학생에게 나태와 기회주의적 학습태도 등을 길러 줄 가능성 등 문제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사무의 電算化와 함께 이같은 문제점을 거의 극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또한 目標志向評價의 개념이 대학에서 실시해야 할 평가의 본래적 모습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현재의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탈락시켜야 한다는 卒業定員制, 각 교과목에서의 평가를 相對的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 등은 지양되어야 할 평가체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지향평가, 지적 수월성의 표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혹은 성취와 불성취를 판정하는 제도에서는 몇 %가 A, 몇 %가 B, 몇 %가 C 여야 한다는 강제적 평가 분포는 수락할 수 없는 평가체제이다.

III

대학에서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評價方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論文型 형식의 문항이

다. 필자는 실제 대학에서 이렇게 논문형 형태의 問項形式만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갖고 있다. 논문형 형태의 문항은 제작하기는 비교적 쉽고, 시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한 개의 교과목의 중간 고사나 학기말 고사에서 급히 문항을 출제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다. 논문형 형태의 문항이 학생들의 認知內容과 認知過程을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비교적 인간의 高等精神機能에 속하는 문제해결력, 사고력, 비판력, 분석력, 종합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이같은 고등정신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문형 문항은 넓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논문형 형태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역시 문제점이 개재한다. 논문형이 갖는 短點은 채점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결핍에 있으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단계나 기타 방법으로 選擇型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등)의 출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선택형 문항은 실제 문항 제작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신 평가의 목표의 포괄성, 신뢰성, 객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논문형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논문형과 선택형을 한 개의 敎科目 評價를 위해 적절히 조화롭게 혼용하는 지혜와 인내가 요구된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선택형 문항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선택형으로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실제 잘 만들어진 선택형으로는 표현력이나 조직력 등 꼭 논문형이 아니면 불가능한 능력 이외에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이같은 질이 높은 문항을 만들기에 시간, 노력 능력에다 문항 만드는 평가능력에 해박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교수는 왕이 아니다. 교수도 교육자인 이상 피교육자의 目標達成의 여부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해 주어야 할 책무를, 교수직을 수락하는 순간에 제약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의내용을 준비하는 것 못지 않게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선택형 문항과 논문형 문항을 적절히 균형있게 출제해야 한다는 命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評價方法이 논문형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또 이같은 추세는 계속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제하고 있는 논문형 문항의 출제, 채점, 학생 반응은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논문형에는 별다른 형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나 지시에 따라 자유로이 수검자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反應의 無制限性」이 특징이다. 그러나 반응의 무제한성이 곧 「아무 것이나 쓰라」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논문형 문항의 바른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대학에서 가끔 관찰하게 되는 논문형 문항의 대표적인 형식을 나쁜 형식에서부터 좋은 형식 순으로 제시해 본다.

○ 어느 사학 전공교수가 백지 시험문제지를 갖고 와서, 각 학생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고 흑판에 다음과 같이 출제한다.

「각자 배운 내용 중에서 아무 제목이나 택해서 쓰라.」

○ 大院君의 鎖國政策
新幹會의 活動
金玉均의 思想
노서아의 남진정책
(4肢 중 擇一)

○ 「김옥균의 사상에 관해 논하라.」

○ 「김옥균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그의 정치활동이 근세 한국의 민족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설명하라. 아울러 그것이 현대 한국의 민족주의의 방향에 어떤 시사를 주는지에 관해 각자의 판단을 정리해 보라.」

위의 例示에서 보듯이 논문형 문항은 잘못 출

제하던 논문형 문항이 갖는 장점은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 문항이 될 위험이 크다. 흔히 「比較하라」고 하는 데도 그냥 기술하고 있고, 「批判하라」고 하는 데도 설명하거나 그냥 비교만 하고 있는가 하면, 「論議하라」하는 데 서술하고 있는 등, 교수 쪽에서나 학생 쪽에서 논문형 검사 문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적당하게 쓰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은 논문형 문항이 나오면 무조건 「시험지를 가득 채우는 筆寫 作業」에만 열중한다. 이렇게 가득 채워서 잔뜩 써 놓기만 하면 신통하게도 학점이 B 이상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학생이 가득 채우는 데 대한 보상은 조건화되어 있는 셈이다. 교수도 역시 자기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논문을 구성했느냐의 판단보다 무엇이든 잔뜩 써 놓으면, 「그 성의가 가득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 같이 교수 쪽과 학생 쪽의 기대가 합치되면서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은 현재와 같은 형식상의 논문형을 출제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논문형이 아닌 「시험지 채우기」가 논문형의 전형처럼 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논문형이 갖는 반응의 자유는 제약된 반응의 자유이다. 각 개인이 알고 있는 知識이나 精神作用을 마음대로 구사하되, 논문형 문항에 제시된 바에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제약이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시 문항의 마지막에 제시된 바처럼 구체적인 目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고, 제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제한성(즉 제약된 자유)은 곧 체질에서의 기준이 되며, 만약 이같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시험지에 가득 반응해 놓았더라도 평점이 나쁘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여러 문항을 주고 그 중에서 택해서 쓰라고 하는 방법(五肢擇一, 四肢擇二 등)은 각각 다른 문항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반응의 可比性(comparability)이 상실되기 때문에 같은 목표, 같은 준거, 같은 능력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의 大前提가 무너지게 된다.

우리 주위에서 논문형에 관한 주장이나 이해의 수준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도 있어서, 마치 과학과 미신이 함께 공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형 검사는 개인의 태도 가치, 의견 등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좋은 선택형 문항을 만들기보다 좋은 논문형 문항 만들기가 훨씬 쉽다. 셋째, 논문형 검사는 좋은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즉, 학생으로 하여금 아이디어의 선택능력, 조직능력, 종합능력,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등을 개발시키는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논문형 검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생각으로 표현하여 쓰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에 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형 검사만이 조직력, 분석력, 비판력 등과 같은 高等精神機能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논문형 검사는 선택형 검사보다 학생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학습동기나 학습 습관에 관한 한 논문형이 선택형보다 우수하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 최근의 Kautian의 연구는 문항의 형식에 관계 없이 학생이 공부한 시간 자료의 조직, 사용하는 기술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V

대학에서의 學生評價는 학생의 학습목표, 학습방향, 학습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논의한 것은 주로 현재 우리 주위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評價方法에 대한 개선과 그 이해의 깊이를 위한 시사를 기한 것이다. 이 이외에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評價方法의 自律性을 위해서는 교수에게 평가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뒤에 책임을 부여하는 대학의 자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형, 논문형 기타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위해서는 재료, 인쇄, 조교, 채점 등에 관련된 각종 行政的支援은 필수적이다. 이같은 지원이 뒤따르지 않은 평가의 개선은 곧 또한 번의 자기 기만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